

메이 영 박사, 성경적 애가의 목적, 예를 통한 연구 - 시편 42-43편, 3차시

메이 영 박사님이 성경적 애통의 목적에 대해 강의하고, 세 번째 세션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성경적 애통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 하고, 특정 상황에서 애통을 어떻게 성경 안에서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시다시피 성경적 애가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무덤 너머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희망은 반드시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불완전한 본질, 고통과 물질, 그리고 타락한 본질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솔직히 말해서 , 우리 의 미래의 믿음에 대한 소망조차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원하는 위로를 항상 가져다주지 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 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읽으면 기쁨은 아침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영혼의 아픔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 저는 애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기다리는 대신, 지금 여기에서 애통해하며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무너지고 타락한 상태를 헤쳐나가도록 은혜롭게 마련해 주신 다방면의 수단입니다. 고통, 상실, 불의를 통해 경험하든,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렵고 타락하고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와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도의 기능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도는 우리가 온전함과 더 큰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시점 에서 애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세 가지 일반적인 범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우리의 고통에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큰 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애도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고통에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 이것은 우리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 하지 않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것을 치유를 향한 첫걸음 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상처를 드러내거나 우리 가 정확히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는 한 치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많은 경우, 신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의사에게 가는 것은, 때로는 실제로 그 첫걸음을 내딛어야 하고, 의사를 만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문제를 잠시 방치하면 상황이 매우 악화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들고, 의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인정하고, 무언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 그래야만 그 고통을 다루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신을 위대한 의사로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은 우리의 치유자이시죠 .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신께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에서 인지 , 기독교인들은 영성을 행복이나 건강과 동일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실제로 때로는 하나님을 더 공경하게 한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행복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행복을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고통과 의심을 침묵시키면 실제로 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기보다는 약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는 대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 이 말씀은 , 믿음은 고난을 겪지 않는 영혼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 사실, 성경적 믿음은 평안보다는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 믿음입니다 .

고통은 종종 우리를 정화하고 우리의 진정한 감정, 죄, 두려움, 의심을 표면으로 드러내는 정제 과정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가리는 대신, 우리는 솔직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아시다시피, 투쟁 하지 않는 신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 이런 방식으로 신앙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실 과 고통 을 기꺼이 슬퍼 해야 합니다 . 매우 성경적 이에요 .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의 이 예에서도, 성경에 "경건한 사람이 스테반을 묻고 크게 애곡했다"는 예가 많이 나옵니다 . 그러니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 감정을 받아들이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감정을 드러내고 상실을 슬퍼하며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예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우리의 고통을 인정할 때 ,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치유 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 그러니까, 우리 가 이러한 것들을 인정할 때, 실제로 우리 자신을 열어 신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에 목소리를 내는 것의 일부는 우리 자신에게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침묵시키고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감정에 치유의 허락을 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캐슬린 오코너는 자신의 저서 『애가와 세상의 눈물』에서 치유의 첫 번째 조건은 고통과 괴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고통과 괴로움을 들여다보고 , 허용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면, 고통과 괴로움은 반드시 보상받을 것입니다.

마주하기 전까지는 줄어들지도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땅속으로 밀어 넣고 거부하는 고통은 족제비처럼 돌고 비틀고 터널을 파고, 결국 빛도 없는 그 공간에서 폭력적이고 알아볼 수 없는 괴물로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시다시피, 고통을 다루고, 고통이 자라나고 굵게 놔두는 대신, 육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감정적인 관점에서도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

그러니, 친절하시네요. 고통에 목소리를 낼 때, 더 이상 마음속 메아리 방에 갇혀 있지 않게 됩니다. 감정이나 고통을 다룰 때,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경우 가 많죠. 마음속 메아리 방 안에는 당신이 다루는 감정이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에 목소리 를 낼 때, 주님 께서 그 메아리 방에 말씀하시도록,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말씀하시도록 허락하는 것 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도 중요합니다. 인지 심리 치료가 트라우마 치유를 언어적, 서면적 이야기 재구성과 연결시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부분 이기도 합니다 .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 심리 치료에 대해 생각할 때, 말과 글로 다시 이야기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일종의 애도처럼, 확장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존 F. 디키는 인지 치료사가 환자의 트라우마 기억을 글로든 말로든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재구성하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면서 환자의 개인적인 삶에 통합시킨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다시 말하는 힘,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다시 말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메아리 방에서 메아리치는 대신, 일종의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트라우마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주체성이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

그래서 그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기억을 묻어두고 무의식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대신, 피해자는 실제로 고통 에 맞서고 슬퍼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억누르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는 대신, 다시 이야기 하고 목소리를 내는 대신, 실제로 주체성을 갖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라우마 계정을 만드는 것은 피해자에게 주체성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고립감을 줄여주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고통을 지켜보고 알아봐 준다는 건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통제력 이나 주체성을 되찾을 수 있어요 .

이렇게 보면, 애도는 저항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애도에 대해, 그리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 역시 저항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받을 때 종종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 받을 때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 가 많습니다 .
목소리가 없다고 느끼죠. 그래서 애도 를 통해 실제로 그 고통에 목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 사람이 느끼는 무언성이나 무력감을 없애는 것 입니다 .

하지만, 애도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에 마지막 말을
하는 대신, 우리의 감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더 큰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그런 의미에서 그 희망을 되찾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인용문은 바로 주디스 허먼이 트라우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찰한 내용입니다. 슬픔을 포함한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것은 가해자의 의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의 행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연구에서 그녀는 학대든 다른
형태의 폭력이든 트라우마 피해자들이 애도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을 때,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종결 없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녀는 애도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환자가 더욱 사회적이고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회복 과정을 구상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어떠한 권력도 넘겨주지
않고 정당한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배상은 결코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무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존자가 현재에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존자들은 자해, 분노, 수치심, 우울증의
악순환에 갇히는 대신, 견뎌내야 했던 모든 것에 대한 끊임없는 굴복에
굴복 하지 않고 치유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

나는 그것이라고 생각한 다 정말 중요한 건, 때로는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때, 고통 과 학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최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 입니다 . 그래서 그런
것에 힘을 주는 대신, 애도하고 그것을 다시 말하는 것은 일종의 저항
행위이자, 자신을 벗어나서 그런 식으로 견뎌야 했던 고통에 대해 최후의
결정권을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식 으로는, 애도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개인에게 목소리를 내주고, 어떤 면에서는 저항 의 행위로,
치유를 찾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 더 나아가 기업
차원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 애도는 공동체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았 듯이 , 우리가 그 상황을 겪거나 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도 ,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매우 고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겪을 때, 고립감을 느끼든 스스로 고립되든, 그 자체가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이 그들과 함께 서서 연대하는 모습을 볼 때 , 그것은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위로를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교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예레미야 애가서의 첫 장에는 고통받는 시온, 혹은 예루살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첫 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녀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통을 목격해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그녀가 겪는 고통을 알아봐 줄 누군가의 선례 같은 게 있죠 .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12장에서 그녀는 외치고 있습니다. "내 고통과 같은 고통이 또 있을까?"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 첫 장에는 다섯 번 반복되는 후렴구 가 있습니다 .

위안자가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장에서 네 번이나 나오는데, 시온 부인이 느끼는 고립감을 더욱 잘 묘사하고 있어요. 시온 부인 은 그렇게 합니다.

없는 것 같아요 . 그녀의 고통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할 때,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이는 실제로 우리도 그들과 함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캐슬린 오크너는 여기서 다시 한번, 애가의 목소리가 독자들에게 고통에 맞서고,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며, 국가, 가족, 그리고 개인이 억압하고 싶어 하는 진실을 위험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라고 촉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마음속에 묻혀 있는, 사회에서 간과되고 세상 곳곳에서 우리의 의도와 관심을 간절히 바라는 고통에 경의를 표하도록 권유합니다. 기업의 애도는 우리가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겪을 수 있고, 고통받는 시기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함께하고, 이런 방식으로 함께 고통을 겪을 수 있는지 깨닫게 도와줍니다 .

따라서 체계적인 불의를 외면함으로써 정상화하는 대신, 애도를 통해 인정하는 것이 공동체가 겪은 고통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에게 중요한 이유는, 뉴스를 듣거나 어려운 일을 겪거나, 혹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접할 때 , 때로는 너무 큰 충격에 휩싸여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저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불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애도할 때, 우리는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아니고 ,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 체계적인 불의는 괜찮다"거나, "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거나, "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버거워서 스스로를 마비 시켜야 한다 "는 게 아닙니다 . 하지만 우리는 애도를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정하는 것만 이 아닙니다 .

그러니 여기서는 단순히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이러한 공동의 애도는 변화를 위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동으로 애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이러한 것들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초대하는 것 입니다 .

우리는 뭔가 잘못 되었다고 말하고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고통을 인정할 때, 불의와 악, 그리고 고통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을 아시죠 .

이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 불의, 악, 고통에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

따라서 공동체로서 애도하는 것은 악을 외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 또한 치유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강력한 사례 입니다 .

그는 자신의 저서 『악과 신의 정의』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진실과 화해를 위한 이 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는 대부분의 서구 언론인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았지만, 백인 보안군과 흑인 게릴라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폭력 범죄를 자백하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통해 고문과 살해 피해자 가족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슬픔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적어도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스스로 압도당하고 분노와 증오에 휩싸이는 대신 삶의 실타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함께 슬퍼하는 것은 실제로 희망을 가져오고, 우리가 악과 불의라는 모든 것에 갇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는 세상의 부서진 모습을 인정하고 치유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

것입니다 . 여기서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 의 고통에 목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통, 아픔, 분노, 그리고 다른 감정들이 우리를 후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해 왔습니다 . 우리가 하고 싶은 한 가지는 관계를 맺는 대신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미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뭉 스크롤을 하거나, 넷플릭스를 몰아보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에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실제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일종의 무관심과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제임스 그로스가 이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면 관계가 단절 되고 개인은 더욱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기를 꺼리고, 가까운 관계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기 안에서, 마치 마음을 닫아버린 것 같은 느낌을 인지하는 거죠 .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 스크롤하거나, 정주행하며,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감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대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나요? 바로 그런 이유로 성경적 애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에는 애가의 예가 너무나 많아서 시편 기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담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감정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더 무관심하게 다루는 대신 ,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후회나 분노, 우울증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 실제로 그들의 기도에 나타나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 할 겁니다 . “신이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신다면, 왜 우리가 애통해해야 하죠? 신이 우리에게 대해 모든 것을 아신다면, 왜 굳이 애통해해야 하죠? ” 저는 이것이 애통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애통 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쏟아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대신 그분께로 향하는 믿음의 행위 입니다 .

그래서 애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흔히 그런 경향이 나타나곤 합니다 . 그래서 애통 이 중요한 것 입니다 . 아시다시피, 여기서 애통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하고 ,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돕는지,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우리의 고난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통 이든 의심이든, 이는 성경에서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욥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인식하고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는 대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을 택합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고통과 감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가면을 쓰거나 가식을 부리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곳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 오히려 우리는 매우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께 나아갈 수 있으며 ,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필요를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kind of~~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홀로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통은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서 우리가 직면한 상황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과정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황을 바로잡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애통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며,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분이시기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그분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을 통한 믿음의 이러한 측면은 특히 악과 불의의 상황에서 더욱 부각됩니다 ~~and just, injustice,~~.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는지, 특히 우리가 무력하다고 느낄 때, 특히 악과 불의의 대상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애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그와 소통할 겁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제가 말했듯이, 때로는 애통이 일어나는 참상에 대한 유일하고 가장 적절한 반응입니다. 어떤 악은 너무나 끔찍해서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과 능력만이 그것들을 궁극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의 외침은 변화를 위한 외침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친 악과 고통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recognizing who God is, that he is able, we recognize who God is and that he is able to do so.~~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공포와 악과 불의 속에서도 ~~that~~ 우리는 스스로를 마비시키거나 눈을 감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에 참여하는 깊은 교제를 경험합니다. 기도 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주기도문과 함께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괴롭히는 불의와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 번째 주제, 즉 애통으로 이어집니다. 애통의 목적 중 하나는 우리를 더 큰 희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통의 목적은 고통에 휩싸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기애적인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

것이 아닙니다 . 오히려 , 오히려 우리를 더 큰 희망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 애통해할 때, 우리 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행동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특히 성경의 애통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는 일들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상황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 , 우리 자신의 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 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이런 의미에서 애통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시기에 가장 깊은 기쁨을 찾았다는 간증을 듣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순간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애통에 대해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듯이, 때로는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할 때 , 가장 깊은 고통을 겪을 때, 주님과 진정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그분께 표현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때때로,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how they actually after, you know, kind of who, after, you know,~~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그 당시 하나님과 느꼈던 친밀함을 그리워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했을 때, 한 학생이 ~~of an illness that resulted in like isolation that was an illness that resulted in isolation~~ 고통 때문에, 그리고 이 병을 겪으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 때문에 부끄러웠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고립되어 있었고, 그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둘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저와 함께 자신의 여정을 나누면서, 이 경험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며 느낀 깊은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그녀가 고통과 외로움에 둘러 있을 때, 더 깊은 기쁨을 찾은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비유하자면, 마치 바닥을 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실제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실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친밀함과 기쁨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더 깊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감당하면서 그분을 향해 힘을 쏟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할 때, 때로는 기다림이 수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실은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on who he is, who he is, and~~ 그분이 행하신 일을 근거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kind of, you know, it's a hopeful kind of a, kind of, you know, it's a hopeful kind of~~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할 때, 수동적인 체념이나 허탈감을 드러내는 대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이전에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을 그분께 기꺼이 맡기려는 희망찬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냉소주의가 아닌 적극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상황에 더 큰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대신,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가져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쏟아 붓고 이러한 일들을 애통해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내어드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일종의 체념과 항복이 더 큰 희망을 가져다줍니다.

헨리 나우웬은 희망이 땅의 평화, 세상의 정의, 사업의 성공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희망은 답이 없는 질문, 답이 없고 알 수 없는 미래, 미지의 것을 기꺼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희망은 온화하고 즐거운 순간뿐 아니라 실망과 어둠의 그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희망에 대해 생각할 때처럼요. 희망은 단지 우리의 상황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는 것일까요? 제 책에서 애도의 목적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상황 에 맞는 다양한 애도의 방식 과 예시들을 살펴봅니다 . 그래서 저는 애도가 단순히 우리 삶의 상황을 생각할 때의 평면적이고 일차원적인 이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슬픔이나 고통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외로움 , 분노, 죄에 대처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 이러한 내용 들은 이후 장들에서 다루고 실제적인 예시들을 통해 다룹니다 .

그래서, 이 시점에서 , 제 책에 있는 한 가지 ~~-and loneliness,~~ loneliness, 특별한 예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 바로 애통 과 버림받음입니다. 시편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예를 살펴보고,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 요소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기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르칠 때 자주 하는 일 중 하나는 , 사람들 에게 자신의 애가를 직접 써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이런 개별적인 요소들을 인식하고 , 그들이 자신만의 한탄을 쓰고,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 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 이 부분은 제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직접 써 보세요.

가끔은, 알다시피, 나는 심지어 , 아시 다시피 , 글을 잘 쓰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 실제로 그 구체적인 요소들을 끌어내고, 그런 식으로 표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탄이나 상황, 감정을 다른 방식 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애가를 쓰고 지역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던 곳 이었습니다 .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 마치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 왜냐하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겪고 있는 일들 중 어떤 것들은 말로 표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

그래서 ~~-allowing yourself to be vulnerable, to share and then also to cover one another in prayer as well,~~ allowing yourself to be vulnerable, to share, and then also to cover one another in prayer as well, 그 나눔이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된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이러한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애가를 써보고, 그것을 가까운 사람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책의 두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5장부터 10장 까지입니다 .

제가 보기에 성경 은 다양한 애가의 예를 많이 제공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기도와 시편 기자를 언급하고 있죠. 제가 언급하는 선지자들도 있는데 , 심지어 애가서나 다른 책에서도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은 실질적인 지침이 필요한 몇 가지 관련 상황 들을 다룹니다. 성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인 지침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통 이 깊이 뿌리 내린 성경적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록 교회에서 자주 듣지는 못하지만 , 애통은 성경의 개념에 매우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애통에서 실제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애통, 외로움 , 그리고 버림받음 의 예를 살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시작하고 싶은 것은, 2021년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1 이상, 즉 36%가 심각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즉, 자주 외로움을 느끼거나 거의 항상, 또는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큰 수치 입니다 . 36%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또한 응답자의 37%가 가끔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즉, 우리는 항상 외로움을 느끼거나 가끔씩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75%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 외로움은 모든 주요 인구 집단에 만연했습니다. 따라서 인종이나 민족 , 또는 거주 지역에 따른 외로움 비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 ~~or gender or levels of education, income, religion, or gender, or levels of education, income, religion,~~

그래서 여기서, 이 한탄과 외로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 아니 어쩌면 항상 느끼는 감정일지도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헌신적으로 섬겼던 제자들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그분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그분도 외로움을 경험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십자가에서,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로 쏟아지셨습니다. 그분 역시 홀로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마주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how can we walk through seasons of loneliness with the Lord and how can we, how can we walk through seasons of loneliness with the Lord, and how can~~ the 애통의 과정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교훈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42편과 43편을 살펴보고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 편 있지만, 저는 이 두 편이 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시편 모두 비슷한 주제를 많이 공유하고 있고, 거의 단어 그대로 이어지는 후렴구를 반복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바로 이 구절들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고대 사본들은 실제로 이 두 시편을 하나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경에는 두 시편이 나열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시편 모두 외로움과 버림받은 감정의 갈등을 대변하는 개인적인 애통의 시편입니다.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렇습니다. 외로움과의 싸움은 종종 하나님과의 거리를 포함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지조차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외로움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그런 걸까요? 이런 때일수록 시편 기자가 던진 질문을 떠올립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두 시편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포로 생활이라는 맥락에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배경을 알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버림받은 감정과 씨름하고 있을 뿐이며, 그것이 시편 기자의 맥락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압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시편 기자가 외로움과 버림받음을 다루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피기보다는,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일반적인 맥락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이 구절이 우리에게 더 잘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 동시에 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는 관련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배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와중에 도 말이죠 . 여기 NIV 번역본에서 발췌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읽지 않겠지만 , 다른 요소들을 지적하면서 이 두 시편의 특정 구절들도 읽어보겠습니다 .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애가의 특징인 다섯 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애가 에 모든 요소가 다 들어 있는 것은 아니며 , 항상 이 순서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시편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 시편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즉 , 호소나 간구, 탄식, 청원이나 불평, 동기, 신뢰의 고백, 들으심을 확신하는 마음 , 그리고 찬양의 서원 등이 있습니다 . 여기에서 함께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서 우리가 부르심이나 간구에 대해 생각해 볼 때 , 시편 기자는 야훼가 아닌 엘로힘을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편 제2권, 즉 시편의 특징입니다 .

시편에는 하나님을 지칭하기 위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시편보다 더 많은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섯 권의 책들을 생각해 보면, 시편 2권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 비유적인 시적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시편 기자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갈증에 비유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의 갈증은 시냇물을 갈구하는 사슴의 갈증 에 비유됩니다 . 자 , 다시 돌아와서 이 구절을 살펴 보겠습니다 .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데,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것 입니다 .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종종 이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개울가에 조용히 앉아 물을 마시는 사슴 말이죠.

아주 평화로운 풍경 이죠 . 하지만 사실, 이건 절망의 그림 이에요 . 훨씬 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사실 꽤 못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요하고 아름답 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조용하고 우아하게 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 실제로는 ~에 대해서 더운 날씨에 숨을 헐떡이며 혀를 내밀고 식히는 사슴.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마치 , 아시다시피, 땀을 흘리는 인간과는 달리 사슴은 과열 됩니다 . 그래서 사슴은 체온을 배출하기 위해 헐떡 여야 합니다 . 그래서 과열 증상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탈진, 현기증, 피로 , 탈수 증상 이 동반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

경우 에는 중요한 장기의 기능이 정지되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 그것은 일종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곳이죠. 단순히 조용하고 고요한 곳이 아니에요 . 제 마음이, 제 영혼이 주님을 갈구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여기 , 절박한 상황,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빗을 지고 있는 기분이에요. 이 사슴은 과열, 탈진, 기절, 피로에 시달리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지금 이 그저 평온한 시간이 아니라, 그에게 절박한 시간임을 보여주는 그림 입니다 .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압니다. 그리고 시편 후반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그의 영혼 속 외로움, 고통, 버림받음, 나약함 , 그리고 절망을 표현하는 절박한 외침 입니다 .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이 그림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탄식, 간구 , 그리고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so~~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시편이 실제로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상승 궤도가 아닙니다 .

그러니까 애도에 대한 뭔가가 있는 거죠 . 그냥 가끔 그런 게 아니라 , 아시다시피, 이 과정 이 계속 반복되면서 괜찮아 지는 거예요 . 가끔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요 .

더 나은 날, 더 희망찬 날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런 식으로 더 절망적인 기분 을 느끼게 될 거예요 . 이건 사실 외로움과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겪는 사람들의 시편에서 발견되는 아주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마치, 어떤 순간은 기분이 좋았다가 다음 순간은

다시 힘들어하는 것처럼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결국, 여기서 애통은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상승 궤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꾸준히,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더 희망을 느끼는 순간도 있고, 더 절망을 느끼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이러한 감정의 변화 속에서도 실제로 이를 반영합니다 . 2절부터 4절 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verse-verses~~ "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 뵈 수 있으리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기를 '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양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전능하신 자의 보호 아래서 기쁨과 찬송으로 축제의 군중 가운데서 노래하며 나아갔던 것을 내가 기억하며 내 마음을 토하는도다."

그래서 여기, 여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열망과 씨름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 하지만 그는 외로움과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는 그의 생각과 씨름하는 것 같았습니다 . 히브리어로는 ~~is-literally-literally means~~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는 뜻입니다.

이 비유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43장에 더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psalmist-psalmist's~~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임재, 그리고 그가 과거와 현재 공동체와 주님에게서 떨어져 혼자 있는 모습과 어떻게 대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찰 을 다루며 ,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밤낮으로 그의 양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 표현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애도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온 존재가 슬픔에 삼켜진 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렇게 깊은 슬픔을 겪는 사람들은 슬픔에 휩싸여 먹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 그래서 여기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아시 다시피 , 당신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하며 자신의 영혼을 쏟아내며 과거의 더 좋았던 날들을 회상합니다.

그는 4절에서 절기 예배 때 하나님의 백성을 기쁨의 함성과 찬양의 함성으로 인도했던 때를 회상합니다. 따라서 이 회상은 그가 5절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도록 이끌며, 이것이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몇 번 더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지어 그가 일종의 성찰과 갈등을 겪는 와중에 도, 그는 이 후렴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후렴구가 이런 식으로 반복될 것 입니다 .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어찌 하여 낙심 하며 어찌 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니, 그는 나의 구원자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시편 기자 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이야기하는, 더 희망찬 순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더 즐거웠던 과거를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더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빠르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울증에 빠지는 대신, 과거를 떠올릴 때, 그는 실제로 마치 그의 영혼과 대화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것 같습니다 . 절망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교차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렴과 짧은 권면 후, 시편 기자는 다시 자신의 애가로 돌아갑니다. 그는 물과 관련된 또 다른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일종의 교대입니다. 그는 자신의 절박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 했던 것들 , 과거의 일들이 어땠는지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또 다른 이미지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는 갈증이나 끝없는 눈물 대신, 다시 한번 물을 다루는 것처럼, 슬픔에 휩싸인 자신의 감정을 묘사하는 또 다른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 그가 겪고 있는 일 을 생각 하고 묘사하는 모습이 매우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

시편에 나오는 심해의 이미지는 종종 혼돈의 원초적인 이미지를 암시하는데, 이 또한 여기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깊은 곳이 깊은 곳을 부르고 있다"라는 구절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는 유일한 분께 부르짖는 혼돈의 감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외로움 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에게서 깊은 이해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깊음이 깊은 곳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고통의 심연을 경험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 외로움의 심연을 채워줄 만큼 깊은 그분께 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이 깊은 곳을 부르고 , 주의 폭포의 포효 속에서, 주의 모든 파도와 파도가 나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홍수와 밀려오는 파도의 이미지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상 시편 기자를 휩쓸고 지나가는 파도와 파도의 감정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그는 거센 파도가 마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와 그를 물속에 가두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파도에 갇힌 경험을 해 보셨다면 ,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수면 을 뚫고 나오는 것조차,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마치 발판 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발판을 완전히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 숨도 쉴 수 없어요 . 이 모든 파도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외로움의 종류, 심지어 마음속에서조차 압도 당하는 감정을 인식하게 하려는 그의 이미지와 같은 것 입니다 . 발판이 없는 듯 파도가 머리 위로 끊임없이 밀려오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깊은 감정적 고통과 슬픔은 숨가쁨이나 심계항진과 같은 신체적 느낌으로 나타나 우리도 숨을 고르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때때로 느낄 수 있는 엄청난 고통 에 대한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심한 울음으로 인해 숨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진정한 감정을 인정하는 사람 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피하려 하지 않고, 비록 쉽지는 않더라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 그래서 애통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빠르게 지나쳐 가는 대신, 그 감정들을 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 기자가 다른 이미지들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면서 “ 나는 그저 슬프다”거나 “ 나는 그저 외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감정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다양한 방식 으로 , 다양한 이미지, 단어 그림 으로 표현하며,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확신한 후에도, 그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는지 계속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원수들의 압제 아래서 애통해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시편이 원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43장에도 비슷한 표현과 질문이 반복됩니다 . 따라서 이 구절들은 실제로 시편 기자가 원수들과 겪은 경험을 중심으로 하나의 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수의 존재를 볼 때 하나님의 부재와 우리의 외로움이 더 예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 에 서 있는 사람이 없으면 더 고립되고 옹호자가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 마치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 그래서 이런 상황 이 일종의 틀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42:9에서 나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아뢰노니,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에게 압제를 받아 애통하며 다니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 그리고 43:2에서는 아주 비슷하네요 . 당신은 제 든든한 요새입니다.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원수에게 압제당하며 슬퍼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 옹호자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너무 외로워요. 신은 어디 있는 걸까요? ~~Where's~~Where is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표현하는 거죠 .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통을 묘사하는 고통을 묘사합니다 .

그리고 그것은 그의 뼈 속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친절한 그래픽이네요. 10 절에서 그가 느끼는 고통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한, 말로 표현된 조롱과 결합된 이미지입니다 .

바로 여기서 그는 다시 한번 그의 영혼의 후렴구를 반복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시편들은 애통과 희망에 대한 갈망 사이를 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자신의 공동체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는 원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거부당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 그래서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가 죽을 만큼 고통당하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조롱하며 ,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네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나의 구원자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러한 교대, 즉 그가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3장에서 기도가 계속되면서, 시편 기자는 이제 변호자를 구하는 자신의 열망을 드러냅니다 . 그는 변호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불경건한 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변호합니다.

SeSo,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든든한 요새이심을 인정하면서도, 거짓과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망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는 매우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원수들의 압제에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에 휩싸이는 대신, 하나님께 빛과 진리와 신실하심을 보내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해 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간구는 시편 기자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그가 여기서도 그것을 보고 있으므로 여기서 변호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가 겪고 있는 탄식과 불평, 그런 것들을 묘사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시편에서 그런 요소와 다양한 비유적 표현, 그리고 그가 자신을 표현 하는 방식, 외로움을 느끼는 방식을 볼 수 있죠. 그의 묘사와 그가 겪는 일들은 매우 솔직 합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실제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 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ere the motivation the motivation here.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거나 움직이시는 이유는 주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는데, 이는 그분의 변호 요청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들이 교활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행동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동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해 달라고 간구하는 걸까요? 그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호소합니다. 그는 갈등과 의심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요새, 자신의 구원, 자신의 반석, 자신의 넘치는 기쁨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런 동기를 갖게 됩니다. 그는 또한 원수들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자신을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는 분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록 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의 거리감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주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비록 그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여기서 무슨 일이 ~~what's~~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지만, 동시에 그는 여전히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SeSo, 그는 제가 묘사하는 방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 속에서 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이 애도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현실을 쉽게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여기서 SeSo, 실제로 인식 하지 못합니다. 어둠과 외로움이 때때로 우리의 시야에 색을 입혀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볼 SeSo,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편 기자가 여기서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SeSo, 바로 이런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넘어보실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분은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심지어 그 안에서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느끼면서도, 동시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아시다시피, 신뢰의 고백과 들으심을 확신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바로 이 부분이 다릅니다.

확신, 즉 고백으로의 전환은, 아시다시피, 흔들리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궤적이 아니라, 우울과 신뢰의 고백 사이를 오가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분명한 고백은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 해서 듣는 후렴구에서 드러납니다.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 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그를 찬송하리라."

들려짐에 대한 확신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탄식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실제로 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도, 여기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니 외로움에 시달 리거나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조차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 격려의 말이나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SeSo,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말해야 하며 ,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로 우리 자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빛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있다고 해서 절망이나 황폐함에 굴복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우리는 여전히 주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과 대조적으로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SeSo,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자기 연민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하는 것 입니다 . 시편을 통해서든 , 우리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일입니다 .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여기서, 외로움 속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진리와 희망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중요합니다 . 흥미로운 점은 이 후렴구가 마리아가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영혼에게 하느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희망하거나 기다리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명령형이기 때문입니다 . 명령형 입니다 . 단순한 진술이 아닙니다 .

그냥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 실제로 명령하는 거죠 . 그러니까 여기서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나 진술도 아닙니다 .

그건 명령이에요. SeSo,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 시켜주는 중요한 사실 입니다 .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단순한 암시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 그래서 여기서, 심지어 감정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애통의 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의 과정 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통과 갈망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우리 영혼이 성경의 진리에 귀 기울이도록 명령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약속하실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SeSo,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다시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 '기다림'은 또한 소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앉아서 감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실제로 , 적극적으로 바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우리가 한 발짝씩 나아가며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변화를 가져오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씻고 , 옷을 입고, 산책을 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사역을 하고,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 우리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현재 위치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항상 우리의 타이밍에 맞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인지할 수 있는 부분 입니다 .

자, 이제 찬양의 서원으로 넘어가 봅시다 .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 바로 이 찬양의 서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서원은 주로 43:4에 나오는데 , 시편 기자가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당신의 빛과 신실한 보살핌을 보내주소서. 그것들이 저를 인도하게 하소서.

거하시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십니다.

하리이다 .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 찬양의 서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인도하시기 위해 빛과 진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빛과 신실하심이 자신을 인도하도록 서원할 뿐만 아니라, 그는 와서 그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빛을 가져오실 때, 그는 이렇게 앞으로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미래 지향적인 면이 있고 , 그게 중요 하죠 .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단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희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

이 구절들이 마지막 단어는 아니라는 점도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단어는 시편에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변덕스럽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찬 순간들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지만, 절망에 쉽게 굴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에 말해야 합니다 .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슬퍼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에 솔직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감정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 절망 속에만 갇혀 있을 필요 도 없습니다 . 시편에서 발견한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시편 42편과 43편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특별한 예를 살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 성경적 애통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애통이라는 개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

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애가의 장르를 살펴보고, 우리 주변의 불확실성과 고통에 직면할 때, 성경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주변의 것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 제가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애도 는 슬픔과 치유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밀어내거나, 문제를 다루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들, 즉 실제로 고통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 사실 , 우리가 슬퍼하고 이런 방식으로 치유 과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합니다 . 또한 이스라엘의 이웃인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애도를 실천하지만, 성경적 애도는 우리를 아시고 돌보시며 우리 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내용과 고대 근동 세계에서 발견하는 내용은 매우 다릅니다 .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점들을 보고, 그 차이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도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애통은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는 혼자서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과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중요한 점은 , 애통은 단지 하나의 감정이나 획일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고 ,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일차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 여러모로 다면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성경을 깊이 파고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의 이편에서 일하시지 않더라도 , 애통은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탄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 사실, 우리가 절망과 고난, 그리고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더 큰 희망 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 합니다 . 사실 ,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그분께 참여하고 더 큰 회복력과 희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을 통해 여기 의 가치를 느낄 수 있고 심지어 글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 이런 식으로 탄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은 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처럼, 애통하는 연습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던 변화를 가져오도록 역사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희망이 반드시 지금 여기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은혜와 힘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과 바울의 가시에 대한 예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지 않으셨지만, 당신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통과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애통을 통해 그분께 간구할 때 필요한 힘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볍고 순간적인 환난이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준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지만,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고 내세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애통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을 만큼 더 큰 친밀함과 희망을 경험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희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